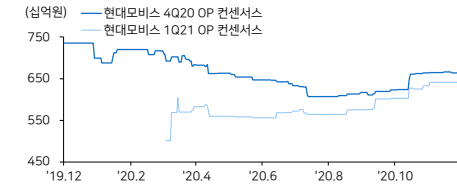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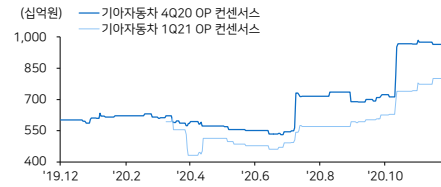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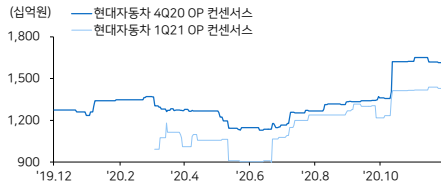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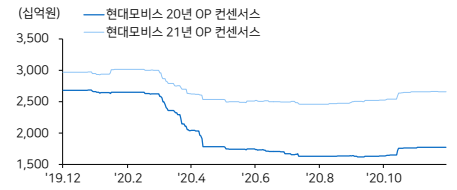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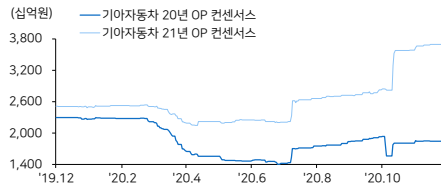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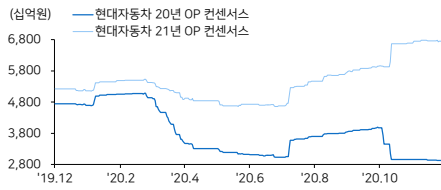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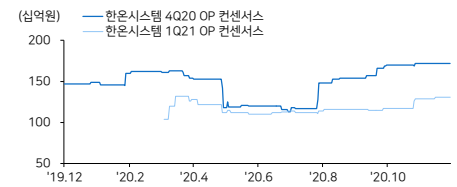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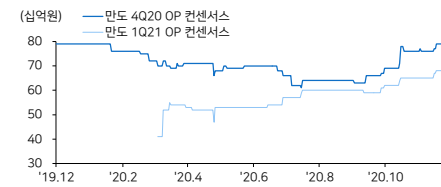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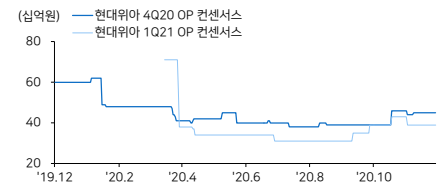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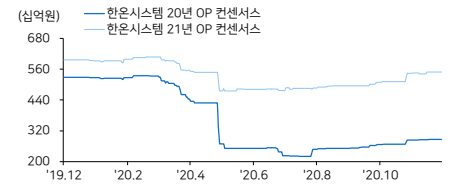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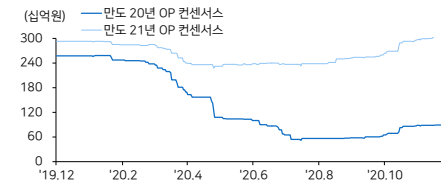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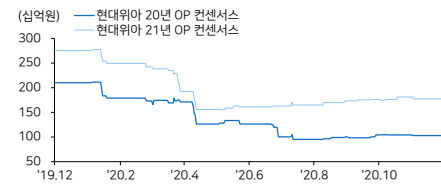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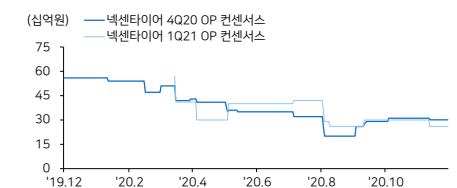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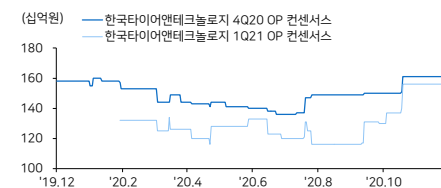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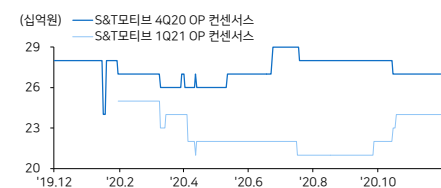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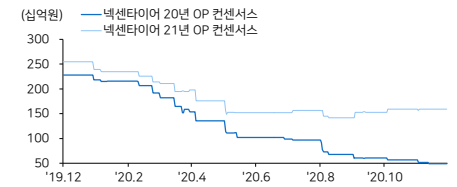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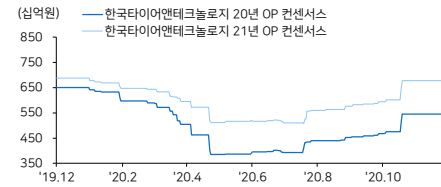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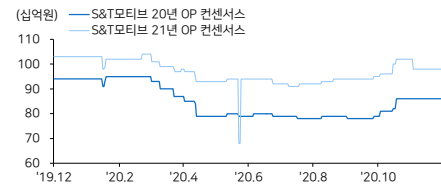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신차 출시마다 역사 쓴 현대차... GV70, '홀런' 대열에 합류하나 (이데일리)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 라인업인 GV70이 내년 1월 공식 출시될 전망이다. 올해 총 6종의 신차(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한 현대차 - 기아자동차가 연이은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GV70도 흥행몰이에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https://bit.ly/2KqGeyq>

올해 1~9월 전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4대 중 3대는 현대차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올해 1~9월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유지. 14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9월 까지 판매량에서 판매된 수소연료전지차 6천664대 중 현대차의 점유율은 73.8%(4천917대)로 압도적인 1위.
<https://bit.ly/2LCTJMF>

기아차 노조 '4차 파업'...전업 복원 놓고 '강대형' 대치 (뉴시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심 결렬을 이유로 '4차 부분파업'을 실행에 옮긴 가운데 임금단체협상 쟁점 사항을 사측이 수용할 때까지 파업의 강도를 높여나갈 태세. 노조는 지난 11일 경영대책위원회의 결정대로 오는 18일까지 5일간 부분파업에 돌입.
<https://bit.ly/2LFeFmP>

中 장안자동차, 5년 내 전기차 25종 출시 계획.. '주목' (데일리카)

중국의 장안자동차가 2025년까지 FCV, BEV와 PHEV를 포함해 모두 25종의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자동차의 상황은 아직 중비수준. 장안자동차는 이를 위해 1천억 위안을 플랫폼 및 전원배터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기로 함.
<https://bit.ly/380xEik>

현대차 부회장 2명 퇴진...세대교체 가속화 (서울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부회장 4명 중 2명의 퇴진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이르면 15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이후 차츰 단행하는 이번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셈.
<https://bit.ly/3gMvEvz>

현대차가 좋은 보스턴다이내믹스, 4년 뒤 美 중시 임성? (서울경제)

정연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넘겨 미국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굵직한 계약을 한 만큼 미국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봄.
<https://bit.ly/3oT4g4k>

코로나 담고 기지게 커는 중자동차시장... '내년 판매 4% 성장 전망' (이데일리)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발(發) 충격 속에 정체됐던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2500만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2KtWZwz>

SK이노, 중국에 3번째 배터리 공장 투자... '전기차 시장 공략'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내 3번째 배터리 공장 투자를 단행.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중국 배터리 제조사 EVE와 부채 출자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EVE 자회사의 지분 49%를 취득.
<https://bit.ly/3oSVgE4>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